

현대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연구

김 혜 선(순천대학교 교수) · 장 현 선(C&C 연구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재화는 유한하므로 희망하는 소비를 다 실현할 수는 없다. 또한 개인의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소비를 무조건적으로 절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주어진 소득 안에서 소비자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방안일까?

본 연구는 자신의 소비생활을 소득에 맞춰 적정하고 특정영역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도록 하며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켜 소비생활수준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소비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성인 소비자 1000명으로 한정하였으며, 2008년 3월 21일-28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온라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WIN과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 재 조사법, 변별력 분석, 문항분석,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분산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소득에 비해 적정한 소비인가에 관한 소비 적정성 측면, 지출 비목간의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소비 균형성 측면, 소비가 즉흥적 판단이나 충동적 구매가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가의 소비 계획성을 측정하는 항목과 이러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소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 소비욕구 충족성의 측면 등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차원의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수준을 분석한 결과 총 5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우월만족형: 소비생활수준이 우수하며 자신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는 집단으로 소비의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계획성의 점수가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집단이다. 소비생활에 관심이 많으며 소비생활 수준에 있어서의 만족도 및 성취도도 높은 집단이다. (2)안분지족형: 현재의 소비생활수준에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대체로 만족하려 노력하는 집단으로 소비의 적정성과 충족성의 점수가 다른 점수보다 낮은 편이다. (3)현실수궁형: 현재의 부족한 소비생활수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집단으로 소비의 적정성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4)현실타개형: 현재의 만족하지 못한 소비생활수준 및 상황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집단으로 소비의 균형성 점수가 다른 요인보다 높게 나왔다. (5)자포자기형: 소비생활수준을 스스로 평가하기 어렵고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상실된 집단으로 4가지 모든 요인의 점수가 타 집단보다 월등히 낮게 나왔다. 소비생활 수준을 생각하는 것조차 이 집단에서는 사치일 정도로 소비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결여된 집단이다.

본 논문은 현대 소비자의 소비생활전반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용어로 소비수준이나 생활수준을 포괄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소비생활수준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소비의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계획성과 같은 다차원적인 관점의 소비생활수준 평가를 통해 소비생활을 점검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을 돌아볼 수 있으며, 동시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바람직한 소비생활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민속지학적 연구 방법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접목하여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